여수시, 제5회 '섬섬여수옥수수 페스티벌' 27일 개막

직거래·체험·문화공연 등 풍성한 행사 펼쳐져

여수시(시장 정기명)가 지역 대표 농특산물인 '섬섬여수옥수수'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화양면민회관 일원에서 '제5회 섬섬여수옥수수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여수시가 주최하고 섬섬여수옥수수페스티벌 추진위원회가 주관한다. 섬박람회를 앞두고 '섬섬여수 옥수수에 설레고~ 2026여수세계섬박람회에 반하다'를 슬로건으로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마련해 섬박람회 분위기 확산에도 힘을 보탤 예정이다.

행사장에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문화공연 ▲체험 프로그램 ▲농특산품 직거래 판매장 ▲먹거리 부스 등 방문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여수의 대표 브랜드인 '섬섬여수옥수수'를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해 소비자와 생산자가 함께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섬섬여수옥수수는 전남에서 가장 넓은 재배면적을 자랑하며 강원도 등 타 지역보다 수확시기가 빨라 남부지방 옥수수 생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섬섬여수옥수수 페스티벌은 지역 농업인에게는 판로를 제공하고, 시민과 관광객에게는 여수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는 축제"라며,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찾아 갓 수확한 여수 옥수수의 맛과 매력을 즐겨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여수시는 이번 축제가 옥수수 재배농가의 판로 확대와 자긍심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섬섬여수옥수수'의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대표 농특산물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비자들은 신선한 지역 농특산물을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여수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섬섬여수옥수수'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강화하고 전국적인 인지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특히 섬박람회와 연계한 홍보 효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아울러 농업인과 시민, 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형 축제로 발전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여수시는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유빈 기자

제5회 섬섬여수 옥수수 페스티벌 포스터 /여수 시청 제공

순천시, 청년 대상 AI 활용 교육 성황리에 마쳐

순천시는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시청 전산교육장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생성형 AI를 활용한 자기소개서 및 포트폴리오 작성법'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급격한 디지털 전환에 발맞춰 생성형 AI 기술을 구직활동에 직접 접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습 내용이 실질적인 취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생성형 AI 프롬프트(명령어) 사용법, 본인의 경험과 직무를 연계한 자기소개서 초안 작성 실습, 개인의 역량을 돋보이게 하는 포트폴리오 구조화 및 작성법, 이미지 생성 등 AI를 활용한 시각 콘텐츠 제작 등 서류 준비 과정을 AI로 쉽고 완성도 있게 해결하는 방안을 다뤘다. 이를 통해 청년들은 AI를 활용한 실전형 취업 역량을 높이고 구직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유빈 기자

광양시, 2026년 하계 청년 행정인턴 모집…행정 경험·취업 역량 강화

광양시는 오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2026년 하계 청년 행정인턴' 참여자 19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으로, 현재 근로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다만 기존 행정인턴 경험자와 시청 및 산하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자는 신청이 제한된다.

근무 기간은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4주간이며 오전(09~12시)과 오후(14~18시)로 나눠 운영된다.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해 오전 76만 380원, 오후 101만 3,840원이며 4대보험 본인부담금은 공제된다.

신청은 'MY광양' 앱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접수로 가능하며 가족이 대리 접수할 경우에는 위임장 지참이 필요하다. 제출서류는 ▲행정인턴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총 3종이며, 모든 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자필 서명해야 한다.

행정인턴 참여자는 7월 1일 광양청년꿈터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선발되며, 최종 자격 확인 후 시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배치된다.

선발된 인턴들은 행정업무 지원, 민원 응대, 자료 정리 등 공공행정 실무를 경험하게 되며, 이를 통해 직무 역량을 높이고 진로를 탐색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청년 행정인턴 사업은 청년들이 공공행정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실무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라며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유빈 기자

곡성군, 과수화상병 확산 우려에 선제 대응… 추가 방제 약제비 지원

곡성군이 최근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지역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추가 방제 약제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

과수화상병은 사과와 배에 발생하는 국가검역병해충으로, 감염 시 치료가 불가능하고 발생 과원 전체를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큰 병해이다. 최근 충청권을 중심으로 발생이 급증하고 인근 지역에서도 신규 발생이 이어지면서 농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곡성군은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26년 과수화상병 사전방제 약제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관내 사과·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사업량은 90ha, 총사업비는 2,250만 원(국비 50%, 군비 50%)이다. 지원 단가는 1ha당 25만 원으로 추가 방제 1회분 약제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읍·면별 작목반과 영농법인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사과·배 재배 필지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개별 농가도 인근 작목반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은 6월 17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작목반 또는 영농법인 대표가 회원들의 신청 물량을 취합해 일괄 신청하면 된다. 대상자는 신청 농가 및 신청 면적 등을 검토해 확정할 예정이며, 약제 구입과 방제 완료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조금이 지급된다.

곡성군은 사과·배 농가를 대상으로 방제 시기 준수와 약제 살포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현장 지도와 홍보를 강화해 과수화상병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일규 기자

구례소방서, 폭염 대비 119구급 대응 강화 온열질환자 대응 및 구급체계 점검

구례소방서(서장 한만조)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증가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급서비스 제공을 위한 「폭염 대비 119구급 대응태세」를 확립했다고 밝혔다.

구례소방서는 폭염으로 인한 응급환자 발생 시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얼음조끼, 얼음팩, 생리식염수 등 폭염 대응 물품 8종 72점을 보강·확충하여 구급차 및 펌뷸런스에 배치했다.

또한 구급대원과 펌뷸런스 대원을 대상으로 온열질환의 정의와 종류, 주요 증상, 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특히 열사병, 열탈진 등 중증 온열질환 발생 시 신속한 체온 저하와 적절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했으며, 폭염특보 발효 시 출동태세를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 보호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한만조 구례소방서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온열질환자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며 "군민들께서는 폭염 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통해 건강관리에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례소방서는 폭염특보 발효 시 출동 태세를 강화해 신속한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또한 군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현장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예방 홍보 활동도 함께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심선섭 기자